

박권수, 『한국의 술수과학과 문명』 (들녘, 2022). 334쪽.

정석현†

박권수의 『한국의 술수과학과 문명』(이하, 『술수과학』)을 끝으로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 발간 사업이 완료되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전근대와 근대를 망라하여 한국 과학문명의 총체적 가치와 의미를 온전히 담아낸다는 것이었다.¹ 사업이 완료되었으니 성과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또한 머지않아 수행되리라 생각한다. 본 서평에서는 ‘한국 과학문명의 총체적 가치와 의미를 담아낸다’는 이 사업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술수과학』의 문제의식과 내용, 그리고 연구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술수과학』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한국 과학사 연구에서 ‘대안적 연구’를 제시하고 전망한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의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선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고 서술해야 하는가에 관한 일종의 ‘대안’을 제시하고 전망한다는 것이 『술수과학』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에 따르면, 지난 세기 한국 과학사 연구에는 이른바 ‘이중적 욕망’이라는 것이 있었다. 과거 한국 과학사 연구는 ‘근대와 과학’의 흔적을 찾아서 강조하고 ‘전근대와 비과학’의 그림자는 부정하고 배제하려는 이중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서구 사회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이중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는데, 저자의 고민은 이 이후의 한국 과학사 연구와 서술이었다. ‘이중적 욕망’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가 공감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국립중앙과학관, rudguszo@korea.kr

¹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 발간사 참고.

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고 서술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저자는 『술수과학』을 그 대안으로서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연유를 보면, 먼저 오늘날 ‘과학’이라고 부르는 수학, 천문학, 지리학, 의학 등이 전근대 한국과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 않았고, ‘과학’이나 ‘비과학’이라는 용어가 전근대 한국과 동아시아의 자연 세계에 대한 학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므로 이것을 ‘과학’이나 ‘비과학’으로 구분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과학적인 것이나 비과학적인 것 모두 ‘술수’라는 하나의 형태로 융합되어 존재했으므로, 과학문명이라 불릴만한 것 대부분은 ‘술수 지식’ 또는 ‘술수적인 것’과 뒤섞여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동안 ‘근대·과학’ 대(對) ‘전근대·비과학’의 대결 구도 속에서 무시하고 외면했던 ‘술수 지식’의 파편을 모아 이것들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작업을 한국 과학(문명)사의 대안적 연구로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관측천문학에 해당하는 천문(天文)의 지식들이 점성(占星), 재이(災異)에 대한 논의와 결합되어 영위되고 있는 모습을 찾아서 정리해야 할 것이며, 수리천문학에 해당하는 역법(曆法)의 지식들이 길흉(吉凶)의 일시(日時)를 결정하는 명과학(命課學)과 함께 논의되고 탐구되어 온 모습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학과 산학의 논의들이 수에 대한 신비적 관념이나 참위적 상수학적 논의들과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찾고, 의학적 담론들이 무속적 치료의 전통들과 함께 존재하는 모습과 땅에 대한 학문인 지리학이 길한 땅을 고르는 풍수(風水)의 지식들과 중첩되어 있는 모습을 찾아서 기술해야”한다는 것이 『술수과학』을 집필한 목적이자 이유라고 하겠다(280).

관측천문학의 점성과 재이, 수리천문학의 택일과 명과학, 수학·산학의 신비적 관념과 상수학, 의학의 무속, 지리학의 풍수는 사실 한국의 전통과학사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주제는 아니다. 천문학, 지리학, 의학의 근대적 성격과 우수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논의되는 동안 점성·재이, 택일·명과학, 상수학, 무속, 풍수 등은 외면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이제 천문학, 지리학, 의학의 근대적 성격과 우수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 외면했던 점성·재이, 택일·명과학, 신비적 관념·상수학, 무속, 풍수 등의 술수지식이 사실은 천문학, 지리학, 의학 지식과 함께 존재했고 영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본격적인 연구와 서술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술수와학』의 저술 요지라고 하겠다.

사실 저자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오랜 연구 활동을 거치며 다듬어지고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처음 서명응(徐命膺, 1716-87)의 역학적(易學的) 천문관(天文觀)에 주목했다.² 1960·70년대 지전설(地轉說) 등 조선 후기 유학자의 우주론 연구에서 ‘서양 과학의 전래와 수용’을 기준으로 독창성이나 근대성만이 논쟁적으로 검토되었을 뿐,³ 그들의 자연 인식의 근간이었던 역학이나 상수학(象數學)은 ‘비과학적인 요소’로 간주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경향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로서 서명응의 역학에 주목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서명응의 역학을, ‘독창과 근대’ 또는 ‘긍정과 부정’으로 평가하던 기존의 방식과 태도를 일체 거부하였고, 서명응이 자신의 정교한 상수학적 사상체계를 기반으로 새롭게 전래된 서양 천문학 지식을 이해하고 해석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일종의 ‘사상적 정당화’라고 평가하며 학계의 이목을 끌었다.⁴

그리고 이후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발전시켰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근대와 계몽의 흔적 찾기’를 재검토하는 연구 성과가 다수 제출되었고,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서양 과학의 전래와 수용이 ‘토착적 지식과 반응하고 결합하거나 융합하는 과정’으로서 새롭게 조명 받게 되었는데,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학·상수학 등 토착적·전통적 지식은 그 자체로서 평가받거나 음미 되지 못하고 ‘서양 과학의 전래와 수용’이라는 우선적 계기에 의해 그 의미가 파악되는 한계가 컸으며, 서양 과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착적·전통적 과학지식이나 자연철학 자체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연구하고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문제의식이었다.⁶ 조선 후기 서양 과

² 박권수, “徐命膺(1716-1787)의 易學的 天文觀”, 『한국과학사학회지』 20:1 (1998), 57-101.

³ 조선후기 地轉說의 독창성 논쟁은 宋相庸, “韓國科學史 研究略史”, 『한국과학사학회지』 3:1 (1981), 136-137; 宋相庸, “韓國學研究半世紀: 科學史”, 『震檀學報』 57 (1984), 209-210에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⁴ 문중양, “回顧와 展望(科學史)”, 『歷史學報』 163 (1999), 518.

⁵ 1990년대 중·후반의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은 문중양, “回顧와 展望(科學史)”, 『歷史學報』 167 (2000), 435-437 참고.

⁶ 박권수, “조선후기 象數學의 발전과 변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4. 저자는 이 연구에서 조선 후기 유학자가 象數學을 이용하여 易學, 天文曆算學, 聲韻學, 歷史學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끌어들이며 철학적 논의를 전개했으며, 그 논의의 내용과 양상이 시기와 분야에 따라 동일하지 않았음을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논증했다. 아울러, 17세기 후반 이후의 변화

학의 전래와 수용 과정에서 전통 과학지식이나 자연철학이 수행했던 역사적 역할이나 기능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전통 과학지식과 자연철학’ 그 자체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던 것이다.

한편, 이 무렵에는 과학사상사 서술과 관련하여 ‘방법론과 정체성에 대한 일치된 입장이 수립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⁷ 이것은 전통 과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당한 자리매김을 지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였다. 전통 과학(또는 과학사상)이 무엇인지, 어떤 지식의 출현이 발전적 흐름인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통 과학(사상)’이라고 재구성되고 있는 지식이 과연 그것의 ‘참모습’인가 하는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조선 유학자들은 건강 유지를 위해서 양생술에 큰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양생술은 음양오행과 주역의 사유체계에 그 이론적 토대를 두었는데, 이러한 양생술을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조선 유학자들은 현대의 지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풍수(風水) 이론을 누구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풍수 이론은 비과학이기 때문에 과학 사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1700년경 무렵 조선인으로는 최초로 지동설을 주장한 김석문(金錫文)은 태극(太極)과 리(理)로부터 모든 만물이 생성된다는 원리를 제시했다. 그의 지동설은 과학 지식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⁸

당시의 이와 같은 고민에만 비춰보더라도, 전통 과학지식이나 자연철학을 서양 과학의 비교군이나 대척점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탐구하고 서술해야 한다는 저자의 지적은 시의적절하며 확장성이 큰 문제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로 저자는 연구의 범위를 재이(災異), 풍수(風水), 택지(擇地), 산론(山論) 등으로 넓혀 나갔고,⁹ 이러한 지식·담론이 천문학, 지리학, 의학 등의 지

에서 서양 과학의 전래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결정적인 변수도 아니었음을 밝혔다.

7 문중양, “한국 유학사에서 과학사상사 서술의 과제와 방향”, 『국학연구』 3 (2003), 405.

8 같은 글, 406-407. 그래서 이 논고에서는 “조선 유학사 내에서 다루어야 할 과학 사상은 조선 유학자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접근하던 방식과 틀, 그리고 그것에 바탕 해 알고 있던 자연 지식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의 연구자처럼 철학적인(인문학적) 사색과 과학적인(자연에 대한) 사색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상체계에 준해서 연구와 서술의 범위와 분야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박권수, “術數과 災異에 대한 李瀾의 견해”, 『성호학보』 3 (2006), 99-134; “『保晚齋叢書』

식과 뒤섞여 ‘술수’의 형태로 존재했고 영위되었다는 점을 『술수과학』을 통해 밝히게 된 것이다. 『술수과학』에 따르면, 위에서 질문한 양생술, 풍수, 태극과 리는 모두 그동안 한국과 동아시아의 과학(사상)사 서술에서 외면했지만 분명히 영위되었던 과학문명의 요소들이었고, 관련된 파편을 모아 새롭게 구성해야 할 과학문명의 조각들이었음에 틀림없다.

다음으로 『술수과학』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술수과학』의 본문은 3부 7장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참고]. 1장은 『술수과학』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술수란 무엇인지 술수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술수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정리했다. 그리고 그간의 연구사를 간략히 검토한 후 『술수과학』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저자의 지적처럼 ‘술수(術數)’가 무엇인지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흔히 점복(占卜), 점성(占星), 풍수(風水), 무속(巫俗), 방술(方術), 참위(讖緯) 등을 ‘술수 지식’이라고 하는데, 저자는 술수를 음양(陰陽)과 오행(五行), 역(易), 상(象), 수(數), 점술(占術), 방기(方技) 등을 아우르는 하나의 커다란 지식 체계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체계는 기(氣), 명(命), 신(神)·신기(神氣)·신명(神命) 등의 개념과 결합되어 무속이나 점복, 신탁의 실천적 행위와 직접 연결된다고 보고, 역·음양·오행·상·수의 개념을 활용한 ‘자연과학적’ 지식과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한다(26-28). 요컨대 저자는 술수를 전통 시대 자연 세계에 대한 거대하고 종합적인 지식체계 및 실천 양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술수의 의미는 시대와 논자에 따라 조금씩 변했고, 20세기 이후에는 ‘미신적인 것’,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지만, 오늘날의 과학문명은 모두 술수에서 기원한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인류의 과학문명사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속의 자연과학 지식’, 『규장각』 32 (2008), 109-137; “『승정원일기』 속의 천변재이 기록”, 『사학연구』 100 (2010), 65-108; “풍석의 자연과학 저술의 특징”, 김문식·김호·염정섭·조창록·박권수, 『풍석 서유구 연구 上』 (사람의무늬, 2014), 243-314; “17세기 조선왕실의 王陵地 선정 과정과 方外地師의 역할-孝宗과 顯宗대의 山陵 조성 과정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 (2015), 33-47; “여암 신경준의 과학사상”, 『한국실학연구』 29 (2015), 235-277; “孤山 尹善道の 山論 연구”, 『한국문화』 72 (2015), 165-192 등

표 1. 『한국의 술수과학과 문명』의 목차

머리말

1부 한국의 술수문화의 기원과 전개

1장 한국의 술수와 과학문명

2장 삼국시대의 술수문화

3장 고려시대의 술수문화

2부 관상감: 조선시대 술수과학의 중심

4장 조선전기의 술수문화 기관

5장 조선시대 관상감과 관료 술사

3부 조선후기 술수와 민간 문화

6장 조선후기 유교와 술수문화

7장 조선후기 술수와 기층문화

맺음말

2장과 3장에서는 삼국 및 고려의 술수에 대해 다루었다. 한국의 술수과학과 문명은 고대의 무속(巫俗)과 신인(神人)에 대한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43). 고대에는 국왕이 사면이자 신인으로서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왕과 무당의 역할이 분리되었고, 삼국 시대에 이르러 무당의 역할이 국가 관료체제에 편입되면서 일관(日官)이나 일자(日者)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해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등장하는 무자(巫者), 점자(占者), 일자(日者), 일관(日官)의 용례를 분석했다(59-60). 그 결과를 보면, 우선 일자·일관은 천문·기상현상뿐만 아니라 기이한 자연현상이나 동·식물 변이(變異)에 대해서도 그 참위적 의미를 풀이했고, 무자·점자와 마찬가지로 국왕에게 예언이나 조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일자·일관이 등장하는 기사에는 귀신이나 제사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무자·점자가 등장하는 기사에는 대부분 귀신이나 신인이 등장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한다. 그리고 일자·일관 관련 기사가 7세기 이후 증가하는데, 이 점에서 6세기 이전까지는 일관·일자의 관직과 업무가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무자·점자의 그것과 중첩되었으나 6세기를 전후하여 기존에 무자·점자가 수행했던 점성·참위적 활동을 일관·일자가 수행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64-65).

고려에서는 불교와 도교, 풍수지리를 중심으로 하는 술수지식과 관련 담론이 사회의 중심적 담론으로 존재했고 폭넓게 향유되었으며, 중앙 정치에도 작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한다. 저자는 고려의 서운관을 술수기관으로 보았는데, 고려 중기까지는 풍수, 점복, 택지, 택일 등의 업무를 관장했던 태복감(太卜監)[→사천대(司天臺)]과 천문, 역법, 각루 등의 업무를 맡았던 태사국(太史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다가 충렬왕 34년(1308) 서운관(書雲觀)으로 통합되었고, 서운관 이후 점복이나 술수의 기능이 다소 약화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이를 충선왕 대에 전래된 성리학의 영향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83). 이어서 고려의 풍수·도참과 도교를 살펴보았는데, 전자에서는 혼요십조 이래 풍수설이 정치 특히 천도(遷都) 논의에 지속적으로 소환된 점을 근거로, 그리고 후자에서는 도교 의례의 실행, 도교 사원의 건립, 재이와 전란에 도교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등을 근거로 풍수·도참과 도교가 고려 사회에서 중심으로 향유된 술수문화라고 하였다(92-93).

4장과 5장에서는 조선 관상감의 술수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다루었다. 저자는 조선 초기 서운관이 관상감으로 개편되면서 관련 업무 상당수가 ‘유교화’되었으나, 술수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했다(113). 고려시기 이래의 술수지식과 업무는 여말선초의 변화를 겪으면서 조선 초기 서운관, 소격서(昭格署), 습산국(習算局)이 분담하게 됐으나, 세종·세조 대를 거치면서 유교 정치 이념에 부합하는 업무와 지식만으로 재편되었고, 소격서나 습산국의 일부 지식과 기능은 관서와 함께 폐기되었다고 한다(147). 그리고 관상감의 업무와 지식은 『경국대전』 이래 천문(天文)·지리(地理)·명과(命課)의 삼학(三學)과 각루(刻漏)[→금루(禁漏)]의 업무로 체계화되었고, 조직은 관상감의 중인(中人)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특히, 조선 후기 관상감 업무의 전문화 경향에 따라 핵심 관료군인 산원직(算員職)이 확대되었고, 천거와 입속, 음양과와 취재 등이 체계화되었다고 한다(5장 3-4절). 다만, 조선 초기 이래로 관상감이 이렇게 유교화·전문화 돼 갔지만, 관상감 소속의 맹인 점복사=명과맹(命課盲)의 존재에서 술수문화의 흔적이 찾아진다고도 했다(185).

6장과 7장에서는 조선 후기 민간의 술수문화에 대해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민간의 술수문화를 양반 사대부의 그것과 기층민의 그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양반 사대부의 술수문화에 대해서는 16세기

이문건(李文健, 1494-1567)의 『묵재일기(默齋日記)』와 유희춘(柳希春, 1513-77)의 『미암일기(眉巖日記)』, 그리고 18세기 황윤석(黃胤錫, 1729-91)의 『이재난고(頤齋亂藁)』를 중심으로 16세기와 18세기 유학자의 점복 행위의 변천에 대해 비교했다. 요컨대 16세기의 점복 활동 중에는 질병에 대한 병점(病占)과 무점(巫占)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18세기에는 병점, 무점, 무속에 대한 점복은 거의 없고 사주점(四柱占)을 통한 관운(官運)이나 과거운(科擧運) 풀이와 자미수(紫微數) 점법이 유행했다고 한다(199, 204). 이러한 유학자의 점복 행위가 경학이나 자연철학과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지만, 저자는 술수학 혹은 점복 관련 지식들은 경학과 자연철학, 천문학의 지식 분야와, 인적(人的)·이론적인 측면에서 서로 착종되면서 항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두 영역을 계층적으로 분리해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210). 조선 후기 민간에 널리 배포된 역서(曆書)도 술수문화 확산에 영향을 주었는데, 주지하듯 역서에는 24방위와 구성(九星), 연신(年神), 월신(月神), 달의 위상 변화, 매일의 오행과 28수, 매일의 역주에 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어 이들을 기초로 관혼상제의 의례와 일상의 생활을 ‘우주적인 시간 리듬’에 맞춰 영위할 수 있었다고 한다(230).

그리고 민간에서는 18세기 이후 무당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17세기에 비해 그 숫자가 2배 이상 늘었는데, 그만큼 민간의 무속과 점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246). 그리고 『정감록(鄭鑑錄)』과 같은 참위서의 유행에서도 조선후기 민간의 술수문화 확산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조선 후기 참위서는 흔히 ‘술사(術士)’라고 지칭되는 이들에 의해 생산 및 유포되었고, 내용은 주로 역모와 반란의 조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19세기 이후의 수많은 민란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정감록』의 유행 양상에 대해, 기층민 사이에서 유행한 술수와 비기 등의 지식이 사실은 사대부 유학자와 왕실에 의해 편찬되고 연구된 우주론적 지식들과 밀접히 중첩되어 있는 것이라면서 술수문화가 상층부와 하층부를 넘나들며 모두에서 향유되었다고 분석했다(266). 요컨대 저자는 『술수과학』을 통해 삼국시대 이래 조선 후기까지 술수 지식을 담지하고 영위한 기관과 행위자를 중심으로 각 시대별 유행했던 술수문화의 내용과 의미를 대략적으로 살펴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으로 『술수과학』의 문제의식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끝으

로 『술수과학』의 연구사적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보며 본 서평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술수과학』의 의의는 저자가 처음부터 주장했듯이 그동안 전통 과학사학계에서 다루지 않았던 술수지식과 관련 담론을 본격적인 연구와 서술의 장으로 소환했다는 점일 것이다. 주지하듯 술수지식과 관련 담론은 일제강점기 이후 소위 ‘합리적·과학적 사유와 생활’을 저해하는 민간의 미신이자 전근대[또는 구습(舊習)]의 잔존(殘存)으로 간주되었다.¹⁰ 그래서 오랫동안 과학사학계에서는 술수 관련 지식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규정했고, 자연스레 연구와 서술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술수는 분명 천문, 지리, 의료, 수학 등과 함께 영위된 ‘과학 문명’의 한 파편이었고, 전통 과학사의 연구와 서술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단 저자의 이러한 주장이 일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서구 근대문명의 세례를 받기 이전 한국과 동아시아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인식론이 ‘과학’/‘비과학’으로 구분되어 있었을 리 만무하고, 천문과 재이·점성, 지리와 풍수·택지, 의료 및 양생과 무속·기양 등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서로 뒤엉킨 채 존재했을 것이니, 천문과 지리와 의료를 탐구하는 작업이라면 재이·점성과 풍수·택지와 무속·기양도 함께 탐구해야 그것의 참모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학술적인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 과학사 연구에서 다루었던 천문, 지리, 의학의 지식이나 담론이 술수 지식이나 실천과 어떻게 얹혀 있었는지 분석적·논리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예컨대 수리천문학에 해당하는 역법의 지식들이 길흥의 일시를 결정하는 명과학과 함께 논의되고 탐구되어 온 모습을 밝히고자 한다면, 역법의 지식과 길흥·일시를 결정하는 명과학의 지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를,¹¹ 저자가 술수에 대해 정의 내린 방식, 즉 음양(陰陽)과 오행(五行), 역(易), 상(象), 수(數), 점술(占術), 방기(方技)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적·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관측천문학에 해당하는 천문의 지식들이 점성·재이에 관한 논의와 결합되어 영위되고 있는 모습이나, 수학과 산학의 논의들이 수

¹⁰ 이인정, “미신 개념과 점복 의미의 역사적 변천과 현재”, 『韓國民俗學』 75 (2022), 114-117. 근대와 과정을 거치면서 점복이나 술수 등이 담당했던 일부 정서적인 기능은 점차 근대적 종교가 수행하게 되었고, 근대종교는 근대과학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공존할 수 있었다.

¹¹ 예컨대 조선 후기 정조 13년(1789) 顯隆園 遷園 당시 논의되었던 역산천문학 지식·활동과 命課學의 選擇 문제의 긴밀성 등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에 대한 신비적 관념이나 참위적 상수학적 논의들과 결합되어 있는 모습, 의학적 담론들이 무속적 치료의 전통들과 함께 존재하는 모습, 땅에 대한 학문인 지리학이 길한 땅을 고르는 풍수의 지식들과 중첩되어 있는 모습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술수과학』에서는 그동안 전통 과학사에서 연구했던 천문, 지리, 의학, 산학 등의 지식이 술수 지식과 중첩 또는 융합되어 존재했었다는 점을 선험적으로만 주장할 뿐 사상 및 지식체계의 이론적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서 다른 전통 과학 지식과 저자가 다른 술수 지식이 어떻게 중첩 또는 융합되어 있었다는 것인지 현재의 『술수과학』만으로는 이해가 어렵다. 물론 술수문명 연구의 시발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술수 지식 및 실천의 이론·사상적 원리를 형이상학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고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술수 문화를 개괄하는 쪽으로 서술 전략을 짰 것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든다. 그러나 『술수과학』 곳곳에서 발견되는 ‘융합’, ‘중첩’, ‘착종’ 등의 용어가 뜻하는 사상적 원리나 구조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술수과학』은 전통 과학사의 정체성과 방법론 논의를 또다시 환기할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무엇을 전통 과학 내지 전통 과학사상이라고 볼 것인지, 나아가 전통 과학과 전통 과학사상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그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의 질문이다. 우선 술수의 영역과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까도 싶는데, 이미 전통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구분이 있었다.¹² 예컨대 재이(災異)와 참위(讖緯), 기양(祈禳)과 음사(淫祀)의 관계 같은 것이다. 재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참위에 빠지는 것은 경계하는 태도나, 기우·기청 등의 제사는 설행하면서도 음사는 엄격히 금지했던 모습이다. 재이나 참위, 기양과 음사 모두 비가시적이며 초현실적인 관념의 소산이라 근대 물리학의 세례를 받은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이를 ‘정(正)과 사(邪)’, ‘시(是)와 비(非)’ 등으로 구분하며, 그들만의 맥락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으로 구분했다. 음사는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나 『정감록』과 같은 참위서가 흑세무민(惑世誣民)한다는 비판은 모두 당대에 제기되었던 것들이다.

¹² 논의의 편의상 일단 조선 후기로 한정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전통사회에서도 사회 구성원이 추구했던 또는 달성하고자 했던 ‘과학’이라는 것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과학’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학술적 용어를 아직 찾지 못해 ‘과학’이라 칭하고는 있지만, ‘오늘날 과학’과는 다를지라도 그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부합하는 ‘과학’이 존재했고, 그들은 그것을 발전·개량시켜 나가기 위해 학문적 또는 기술적으로 노력했으며, 이 경우 전통 과학사 연구는 그 노력의 흔적과 발자취를 추적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탐구하는 지적 활동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술수를 전통 과학사의 연구와 서술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분명한 어조로 미신이나 술수를 배격했던 이익이나 정약용은 일단 차치하고, 예컨대 18세기 중반 황윤석의 과학사상을 논할 때 그가 행했던 점복 활동을 그의 과학사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황윤석은 자연 세계와 인간사회에 대한 이치를 깨닫기 위해 역학적 원리를 고도로 활용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¹³ 그리고 저자도 지적했듯이 그의 상수역학적 지식은 그가 행했던 점복이나 점법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황윤석이 역학이나 상수학, 천문역산학을 탐구하여 점복이나 점법의 원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고 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같은 논리로 음양오행이나 3원 28수의 원리를 공유했다고 해서 관상감에서 수행했던 천문역산학과 민간에서 행해졌던 점성(占星)을 ‘술수’라는 이름으로, 같은 층위의 학문이나 지식답론으로 묶는다면 지나친 단순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저자가 『술수과학』에서 이와 같이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점복과 같이 삶의 일부로서 영위한 것과, 인간과 자연 세계에 대한 이치를 깨닫기 위해 역학과 상수학 등을 학문적으로 연마한 것은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만약 그렇다면 18세기 중반에 황윤석이 점복 활동을 수행했는지라도 그의 과학사상의 범주 안에 점복을 포함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18세기 후반 관상감의 아무개 관원이 점성을 했다고 해서 정조 대 관상감의 국가천문학 활동에 점복을 포함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술

¹³ 황윤석의 과학사상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한 연구성과는 아직 없으나, 그가 평생의 역작으로 여겼던 『理藪新編』을 통해 이치 탐구에 대한 그의 열망을 읽을 수 있다. 황윤석의 『이수신편』에 관해서는 구만옥, “이수신편(理藪新編)의 편찬과 내용 구성”, 『한국사상사학』 69 (2021), 221-271 참고.

수를 전통 과학사의 연구와 서술의 범위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여겨진다.

근래 연구 풍토를 보면 공통된 담론이나 구심 없이 연구자 개인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연구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큰데, 『술수과학』을 통해 전통 과학사 분야의 오래된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과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다시금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답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발전적인 논의가 생산될 것으로 보이고, 『술수과학』이 더 많은 연구자에게 학문적 자극을 주길 바란다.